

## 산욕기 산모의 간호요구 조사

김명희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이성은 (경북전문대학 간호과)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문헌고찰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에는 분만으로 인한 내분비의 변화 및 체형의 변모를 비롯하여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분만 후 엄마로서의 육아에 대한 책임, 역할 등으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Lipkin, 1978). 그러므로 분만 사건은 산모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의 변화 등 심리적, 사회적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위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Hans, 1986). 확대가족에서는 생생한 역할 모델과 정서적 지지체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서 다음 세대인 자녀를 가르쳐 부모가 되는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면서 이러한 관습은 약화되었고 젊은 부부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로 인한 어려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이자형, 1996). 그러므로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산욕기 산모가 잘 적응하도록 간호사가 산모를 지지, 교육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진다.

산욕기 산모 간호는 임신 분만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회복과 정서심리적 재적응과 아기의 출생으로 인한 모성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와 교육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미국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보건간호사, 산과병동 간호사, 수유간호사, 가정간호사들이 퇴원 직후부터 가정으로 방문하여 계속적으로 산모와 아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후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분만 24시간에 퇴원하는 등의 조기퇴원 경향에도 불구하고 간호 수혜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 전문인의 산후관리와 기간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정상 분만의 경우 합병증이 없으면 2박 3일, 제왕절개 경우 5박 6일-6박 7일의 병원입원 기간동안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퇴원 후 추후관리의 기회는 임상적으로 주로 산후 1-2주 또는 3주-6주에 생식기의 정상으로의 회복 여부를 위한 의사의 내진 및 신체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유은광, 1997).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산모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정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퇴원 후 가정에서 자가 간호와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Tribotti, Lyons, Blackburn, Stein & Withers, 1988).

지금까지 임상에서 산욕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다(최의순, 1977), 현재 병원에서 임산부가 산전 건강관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로 임부와 태아의 신체적 평가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육아에 관한 것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 준비에 관한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분만 초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신체적 간호와 일방적인 지도에 끝날 뿐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데 대한 준비나 육아의 방법과 기술, 지식에 대한 간호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이광옥, 1992). 그러므로 산욕부들은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해결해 줄 적절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모자신과 신생아 관리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Gruis, 1977).

간호사는 짧은 입원 기간동안 산욕부의 요구의 우선순위를 사정하여 즉각적인 교육중재를 해야 하는데(McKenzie, Canaday, & Carroll, 1982), 질적이며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가능하며, 간호 실무의 본질은 대상자의 다양한 간호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홍신영, 1980).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연구는 주로 산모의 자가간호와 육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산욕기 산모가 자신과 아기 이외의 다른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산욕기 산모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조사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 1주 이내의 산욕부의 관심과 요구를 산모자신과 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사함으로써 산욕기 산모의 간호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산욕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간호교육의 기초자료 및 간호중재의 합리적 근거를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2. 용어 정의

### 1) 산욕기 산모

산욕기 산모는 분만 후 생식기가 정상적인 비임신 상태로 돌아오는 6주간인 산욕기(Reeder, Martin & Koniak-Griffin, 1997) 중에 있는 산모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 38주 이후에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한 산후 1주 이내의 산모를 말하며, 산욕부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 2) 간호요구도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분만으로 인한 신체, 정서심리적 변화로부터 회복, 재적응하고 또 출산으로 인한 모성전환과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 정도(전영자, 1997)를 의미하며, Bull(1979)의 MCQ(Maternal Concerns Questionnair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문헌고찰

분만 후 기간은 산모와 가족에게 적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적응의 문제에 있어 산욕기는 산욕부에게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가지게 한다. 산욕부의 관심은 아기를 포함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변화되는데, 특히 처음 어머니가 되는 산모는 산욕기 동안에 자신의 불편한 신체적 조건과 새로이 부과된 어머니의 역할로 인해 모자 및 가족간의 신체적, 심리적 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Reeder et al, 1997), 산모가 모성 역할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 산모는 불안하고 갈등을 일으켜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산모 간호는 즉각적인 신체적 간호뿐만 아니라 퇴원 후 자가간호와 육아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Evans, 1991).

일반적으로 산욕기는 6주가 소요되는데, 산욕기간에 따라 산모의 간호문제나 간호요구는 다소 다르나 산욕기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건강의 유지 증진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Youngkin & Davis, 199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만 후에는 전통적

으로 산후조리라는 비전문적인 산후관리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여부를 산후조리의 탓으로 돌려 왔으며, 이를 잘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잘못하면 평생 고질병으로 고생하므로 산후조리를 잘해야한다고 산모들에게 강조하여 왔다. 이는 산후의 건강의 책임은 전문 보건 관계자들이 아닌 산모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산모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중요하며 또한 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는 산모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산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모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유은광, 1993).

그러나 1988년부터 1997년 사이에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회지 게재논문 총 3080편 중에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간호연구는 390편(12.7%)이었으며, 이 중 산육기에 관한 연구는 17.1%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92년 이후부터였다. 여기에는 산후우울에 관한 여성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산후관리나 산후병에 관한 연구는 단지 4편에 불과하다(이숙희와 박영숙, 1998). 이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산모와 그 대상자들이 또 의료인들조차도 산후관리를 산육기 간호의 전문적인 개념보다는 산후조리라는 전통적인 관리로 대치해온 결과라고도 보여진다.

산육기 산모 간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구방법 측면에서 볼 때 양적 연구는 2가지로 구별되는데, 대상자의 관점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탐색적 조사연구(exploratory descriptive)와 산육부의 관심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서술,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 correlational study)이다.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후관리인 산후조리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육부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MCQ 도구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Geisler(1989)는 간호사가 구조화된 질문지인 MCQ와 비구조화된 질문 중 어느 것이 산육부의 관심정도를 규명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인지를 조사하였는데, 구조화된 질문지가 산육부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특히 피로감, 신생아 수유, 아기 행위 해석과 신생아의 신체적 간호 행위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초산모는 자신과 아기에 대한 관심을 더 표현하였고, 경산부는 주로 자신에 대한 관심과 신생아를 가족의 일원으로 어떻게 통합시킬건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Bull(1981)은 MCQ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퇴원 후 1주된 초산모의 관심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관심은 감소되었고, 신체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으며, 자신의 정서적인 측면에 관련된 관심은 강도면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아기의 신체적 간호에 대한 관심은 감소되었지만 아기의 행위에 대한 관심은 중정도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배우자, 가족, 지역사회와 관련된 관심은 병원에서와 퇴원 1주후에 비교해 볼 때 별차이가 없었다. Lemmer(1987)와 Norr, Nacion과 Abramson(1989)은 초기 퇴원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육부를 대상으로 MCQ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체형의 복구, 운동, 아기의 질병 신호 인식하기 항목에 중정도 이상의 관심을 보였다. Moss(1981)는 56명의 모유수유를 하는 경산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산육부는 자기자신이나 신생아보다는 가족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대상자의 78%가 초산모인 Graef 등(1988)의 연구에서는 수유산모 97%가 아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81%는 자기자신, 19%만이 가족 구성원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Sumner와 Fritsch(1977)의 연구에서 산육기 6주된 산모의 가장 많은 질문은 모유수유에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신생아 발진, 신생아 잠재우는 법, 신생아 울음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산후에 어머니 교실을 만들어 신생아 간호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지식을 지도할 수 있는 지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욕부들은 산후 많은 간호요구를 갖고 있으며, 산욕부의 간호요구는 자녀수, 산욕시기, 분만경험, 수유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산욕부의 간호요구나 관심은 전문직 간호사의 간호교육이나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산욕기 산모의 산후합병증과 모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중재를 시행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욕부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간호중재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지역 2개의 대학병원에서 분만한 산욕기 산모 101명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로 하였다.

1) 임신 38주 이후에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합병증이 없는 정상 산욕부로서 산후 1주일일 경과하지 아니한 산모

2)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산욕부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Bull(1979)의 MCQ(Maternal concern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Bull(1979)이 산욕기 동안의 산모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6항목의 Maternal Concerns Questionnaire를 개발했으며, 그 후 Moxon(1989)이 산욕부와 다른 자녀와의 관계와 다른 자원의 접근 용이성에 대한 내용으로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는 50개의 문항과 1문항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에게 적합하게 1개의 문항을 제외한 49개의 항목과 1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문항은 산욕부가 자기자신이나 아기, 배우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 가질수 있는 관심을 묻는 5개의 하부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기자신에 대한 문항 18개, 아기에 대한 문항 11개, 배우자에 대한 문항 6개, 가족에 관한 문항 6개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항 8개로 구성되어졌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당시 Cronbach'  $\alpha$  0.90(Bull, 1979)이었고, Moxon(198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0.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0.91이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type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욕부의 간호요구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충청지역 2개의 대학 병원의 산욕부를 대상으로 1997년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주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산욕부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산욕부의 간호 요구를 조사하고자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산과적 변인 그리고 산욕부의 간호요구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2) 초산부와 경산부의 간호요구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산과적 변인에 따른 간호요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하였다.

####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지역 2곳의 대학병원에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충북지역 산모의 간호요구에 대한 이해와 간호계획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산육부에 대해 확대 해석할 때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0세에서 39세까지로 평균 29세였으며, 26세에서 30세가 50.5%였다. 결혼기간은 1년이하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서 3년이 22.8%, 3년에서 5년이 24.8%, 5년을 넘는 대상자도 18.8%였다. 신생아를 포함한 자녀수는 1명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43.6%였다. 대상자의 반수이상(55.4%)이 아들이 있었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32.7%였고, 중졸이하(6.9%)와 대학원 이상(1.0%)도 소수 있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49.5%였고, 없는 대상자는 50.5%였다. 직업은 대부분이 전업 가정주부로서 직업이 없었다(80.2%). 월평균 가족 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51.5%였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23.8%, 200만원 초과는 18.8%였다.

산과적 특성으로 유산경험은 대상자의 반수이상(51.5%)이 있었으며, 신생아에 대한 수유형태는 63.4%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고, 인공수유는 15.8%였으며, 혼합수유는 20.8%였다. 이번 분만의 경우 산전진찰을 받은 경험은 대상자의 96%가 받았다고 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86.1%가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산전진찰 경험이 없는 대상자도 4%나 있었다. 산전진찰의 시작시기는 과반수(55.4%)가 5주내지 8주 사이에 받았고, 9주에서 12주가 17.8%, 4주 이내가 15.8%였으며 13주 이상은 5.0%였다. 이번 분만의 형태는 질식분만이 47.5%였고 제왕절개가 52.5%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 (n=101)

특성/구분	실수	백분율
<b>연령</b>		
25세이하	16	15.8
26-30세	51	50.5
31-35세	27	26.7
35세이상	7	6.9
평균: 29.01(20세-39세)		
<b>결혼기간</b>		
1년 이하	29	28.7
1년초과-3년	23	22.8
3년초과-5년	25	24.8
5년 초과	19	18.8
무응답	5	5.0
<b>자녀수 (아기 포함)</b>		
1명	48	47.5
2명	44	43.6
3명	8	7.9
4명	1	1.0
<b>아들 유무</b>		
무	44	43.6
유	56	55.4
무응답	1	1.0
<b>교육정도</b>		
중졸 이하	7	6.9
고졸	60	59.4
대졸	33	32.7
대학원 이상	1	1.0
<b>종교</b>		
무	51	50.5
유	50	49.5
<b>직업</b>		
무	81	80.2
유	20	19.8
<b>월평균 가족수입</b>		
150만원 이하	52	51.5
150초과-200	24	23.8
200 초과	19	18.8
무응답	6	5.9
<b>유산경험</b>		
있다	52	51.5
없다	49	48.5
<b>수유형태</b>		
모유수유	64	63.4
인공수유	16	15.8
혼합수유	21	20.8
<b>산전진찰</b>		
유	97	96.0
무	4	4.0
<b>산전진찰 시작시기</b>		
4주이내	16	15.8
5주-8주	56	55.4
9주-12	18	17.8
13주 이상	5	5.0
무응답	6	5.9
<b>정규적산전진찰</b>		
정규적	87	86.1
비정규적	14	13.9
<b>분만형태</b>		
질식분만	48	47.5
제왕절개	53	52.5

## 2. 산욕기 산모의 간호요구도

### 1) 자신에 대한 간호요구도

산욕기 산모가 갖는 자신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평점 2.98이었고, 경산부에서는 평균 평점 2.80으로 초산부의 간호요구가 경산부보다 많았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가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갖는 간호요구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3.93)이었고, 그 다음은 임신전으로의 체형복귀 문제(3.58), 유방관리(3.29), 진통과 분만의 경험(3.25), 질분비물(3.14)순으로 나타났다. 경산부의 경우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3.75), 회음절개 혹은 수술부위의 불편감(3.24), 임신전으로의 체형 복귀 문제(3.11), 질분비물(3.03), 유방관리(3.03) 순으로 나타났다. 초산부와 경산부의 간호요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운동( $t=2.73, p=0.00$ ), 임신전으로의 체형복귀 문제( $t=2.52, p=0.01$ ), 좋은 엄마가 되는 것( $t=2.12,$

$p=0.0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산모의 자가간호에 대한 교육적 요구에 대해 Reeder 등(1997)은 신체 기능의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육구의 충족 방법, 유방 간호, 회음부 간호, 산욕 체조, 수유부가 금해야 하는 약물, 성생활과 가족 계획, 가사활동의 재기 시기와 유의사항, 신체의 이상 증상, 정기 신체 검진의 시기와 필요성 및 병원에 즉시 와야 할 증상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병원에서의 산욕기 간호는 산모의 신체적 증상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산모의 간호요구에 대한 이해와 증제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 2) 아기에 대한 간호 요구도

아기에 대한 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 3.64였고, 경산부에서는 평균 3.53으로 초산부의 요구도가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산모가 아이에 대해 갖는 간호요구는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에게서 자신이나 배우자

<표 2> 자신에 대한 간호요구도

문항	초산부 (n=48)	경산부 (n=53)	t값	p값
	M ± S.D.	M ± S.D.		
1. 귀하가 먹는 음식	2.91±0.91	2.60±0.96	1.66	0.10
2. 운동	2.95±0.89	2.49±0.82	2.73*	0.00
3. 임신전으로의 체형복귀문제	3.58±0.79	3.11±0.05	2.52*	0.01
4. 분만후 월경의 시작 시기	3.06±1.11	2.86±1.00	0.92	0.35
5. 회음절개 혹은 수술부위의 불편감	3.02±1.06	3.24±1.05	-1.06	0.29
6. 질 분비물	3.14±0.92	3.03±0.99	0.56	0.57
7. 변비문제	2.95±1.11	2.67±1.08	1.28	0.20
8. 치질문제	2.60±1.23	2.60±1.19	0.00	0.99
9. 유방의 통증문제	3.04±1.07	2.98±0.99	0.30	0.76
10. 유방관리	3.29±0.92	3.03±0.99	1.32	0.18
11. 피곤	2.81±0.96	2.66±0.99	0.78	0.43
12. 정서적 긴장	2.79±1.01	2.66±1.05	0.64	0.52
13. 집중하기 힘든 문제	2.47±1.13	2.34±1.14	0.62	0.53
14. 진통과 분만의 경험	3.25±1.13	2.92±1.14	1.43	0.15
15. 구속되는 느낌	2.29±1.14	2.24±1.07	0.21	0.83
16. 임신, 분만, 신생아와 관련된 우울한 느낌	2.56±1.20	2.50±1.23	0.22	0.82
17. 개인 취미를 위한 시간 갖기	3.02±1.04	2.73±1.05	1.36	0.17
18. 좋은 엄마가 되는 것	3.93±0.24	3.75±0.55	2.12*	0.03
계	2.98±0.49	2.80±0.55	1.71	0.09

\*p < 0.05

등 기타 요구도보다 높았다. 이는 산모들이 자신보다는 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경혜(1982)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며, Wachs와 Gruen (1982)이 지적하듯이 자녀를 처음 출산한 초산모는 신생아 돌보기 활동 수행에 있어 모유먹이기,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아기 상태 파악하기 등을 대상자의 반수 이상에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산모들이 아기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는데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경산부 또한 초산모와 같이 아기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은 것은 이들이 첫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음에도 여전히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나 지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별로는 초산부에서 모든 문항이 평균 3점을 넘어 중간정도 이상의 관심을 보였는데, 아이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이 평균 3.91로 가장 많은 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기의 질병 신호 인식하기(3.85), 신생아를 편안하고 포근하게 돌보는 것(3.79), 아기의 행위나 몸짓 해석(3.72), 신생아 수면 문제(3.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산부에 있어서도 모든 문항이 3점 이상을 넘는 중간 이상의 간호요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산부와 유사하게 아이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3.90), 아기의 질병 신호 인식하기(3.73), 신생아

를 편안하고 포근하게 돌보는 것(3.71), 아기의 행위나 몸짓 해석(3.67), 신생아 수유 문제(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산부와 경산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신생아 수면 문제( $t=1.94, p=0.05$ )로 초산부에서 신생아 수면에 대해 많은 요구를 갖고 있었다<표 3>.

이경혜(1982)는 산육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영아측의 간호요구로는 안전관리, 응급처치, 목욕, 아기울음의 의미파악과 달래기, 젖떼기와 이유식 준비를 들었고, 모성측 보다는 영아측의 요구가 많았고, 경산모 보다는 초산모의 간호요구가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산육부들이 아기에 대해 높은 간호요구를 갖는 것을 볼 때 분만 후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퇴원 후 신생아 양육을 위한 어머니 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초산모는 새로운 역할에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나 교육이 반복해서 제공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산모들의 조기퇴원으로 산육기 간호가 너무 일찍 종결되므로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추후간호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3) 배우자 관련 간호요구도

<표 3> 아이에 대한 간호 요구도

문항	초산부 (n=48)	경산부 (n=53)	t값	p값
	M ± S.D.	M ± S.D.		
1. 신생아의 외모	3.45 ± 0.74	3.34 ± 0.75	0.79	0.42
2. 아이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	3.91 ± 0.45	3.90 ± 0.45	0.12	0.90
3. 신생아 수유문제	3.60 ± 0.73	3.49 ± 0.80	0.74	0.46
4. 신생아 돌보기 (예:기저귀갈기, 체대간호, 포경수술)	3.58 ± 0.67	3.39 ± 0.81	1.24	0.21
5. 신생아를 편안하고 포근하게 돌보는 것	3.79 ± 0.54	3.71 ± 0.74	0.57	0.56
6. 아기의 행위나 몸짓 해석	3.72 ± 0.57	3.67 ± 0.61	0.42	0.67
7. 신생아 수면 문제	3.70 ± 0.71	3.39 ± 0.88	1.94*	0.05
8. 아기의 질병신호 인식하기	3.85 ± 0.50	3.73 ± 0.59	1.07	0.28
9. 신생아 테리고 외출이나 여행하기	3.27 ± 0.91	3.15 ± 1.02	0.62	0.53
10. 신생아 사고방지 위한 안전문제	3.66 ± 0.80	3.17 ± 0.60	0.36	0.72
11. 기온에 적절하게 아기 옷 입히기	3.52 ± 0.79	3.32 ± 0.87	1.20	0.23
계	3.64 ± 0.47	3.53 ± 0.44	1.24	0.21

\*p=0.05

배우자에 대한 간호 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 3.33으로 중간정도 이상의 간호요구와 관심을 나타냈고, 경산부에서는 평균 3.06으로 중간정도의 관심을 보였는데, 초산부가 경산부보다 배우자에 대한 간호 요구도가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1, p=0.03$ ).

문항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는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간이상의 관심을 보였고, 특히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갖고 있어 산모의 관점이 아이와 관련된 것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경산부는 6문항 중 3문항이 평균 3.0이상으로 중간이상의 관심을 보였는데,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3.77)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 여가나 휴식을 위한 시간 마련하기(3.13)과 출산 후 남편과의 관계(3.11)에 대해 중간 이상의 관심을 보였다. 초산부와 경산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출산 후 남편과의 관계( $t= 1.93, p=0.05$ )

와 부부끼리만 지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기( $t=2.17, p=0.03$ )였는데, 초산부는 경산부보다 더 출산 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표 4>.

4) 가족과 관련된 간호요구도

가족과 관련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 평균 2.65였고, 경산부에서 평균 2.80였고,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호요구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산부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초산부보다 많은 간호 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isler(1989)의 연구에서 초산부는 자신과 아기에 대한 요구가 더 큰 반면, 경산부는 주로 자신과 가족의 일원으로 신생아의 통합과 관련된 요구가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경산부 산육관리에서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가족들의 요구관리( $t=-1.99, p=0.04$ )였다<표 5>.

<표 4> 배우자 관련 간호요구도

문항	초산부(n=48)		경산부(n=53)	
	M ±S.D.	M ±S.D.	t값	p값
1. 출산후 남편과의 관계	3.47±0.82	3.11±1.05	1.93*	0.05
2.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3.87±0.48	3.77±0.57	0.95	0.34
3. 남편과 여가나 휴식을 위한 시간 마련하기	3.41±0.79	3.13±0.98	1.59	0.11
4. 부부끼리만 지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기	3.16±0.97	2.69±1.17	2.17*	0.03
5. 성관계	2.87±0.86	2.73±1.04	0.73	0.46
6. 가족계획	3.16±1.01	2.96±1.30	0.87	0.38
계	3.33± 0.53	3.06± 0.69	2.11*	0.03

\*p < 0.05

<표 5> 가족과 관련된 요구도

문항	초산부(n=48)		경산부(n=53)	
	M ±S.D.	M ±S.D.	t값	p값
1. 가족들의 요구 관리	2.58±0.91	2.92±0.80	-1.99*	0.04
2. 가족의 생활방식의 변화	2.93±0.99	3.01±0.86	-0.44	0.66
3. 방문객 제한	2.33±1.11	2.24±1.10	0.30	0.76
4. 재정적 문제	2.77±1.17	2.88±1.05	-0.52	0.60
5. 손윗형제의 신생아 질투		2.92±1.12		
6. 당신이 다른 아이와 보내야 하는 시간		2.84±1.23		
계	2.65± 0.81	2.80± 0.66	-0.78	0.43

\*p < 0.05



5) 지역사회에 관련된 간호요구도

지역사회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5가지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초산부는 평균 2.48, 경산부는 2.42로 두 집단에서 모두 약간의 요구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이 지역사회에 대해 유사한 간호요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시설 이용문제에 대해 중정도 이상의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초산부 3.22, 경산부 3.32), 친척이나 친구로부터의 충고(초산부 2.81, 경산부 2.56), 지역사회 자원 이용 가능성(초산부 2.54, 경산부 2.62)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지역사회에 관련된 간호 요구도는 자신, 아기, 배우자와 가족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Muehl(1983)이 산후 6-8주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산후 6-8주의 산모가 산전이나 산욕 1주의 대상자 보다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는 결과를 볼 때, 본 대상자는 분만 1주 이내의 대상이므로 산모의 관심이 자신과 아기에게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3.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의 차이 검증

전체 대상자 101명에 대해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규적 산전진찰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9, p=0.02$ ). 즉, 정규적 산전진찰을 받은 집단에서 비정규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은 집단보다 간호요구도가 높았다<표 7>. 이는 정규적 산전진찰을 받는 집단이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간호요구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Rutledge와 Pridham(1987)의 연구에서는 초산모의 간호요구는 산모의 상태, 과거 경험, 분만후 입원 동안의 경험, 지지체제의 유무, 산전교육 및 산후 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4. 대상자의 지지자원

임신, 분만시의 대상자의 지지자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전관리의 정보나 교육을 얻은 곳, 산후조력자와 임신, 분만, 신생아에 대한 의문점 문의처

<표 6> 지역사회에 관련된 간호요구도

문항	초산부(n=48)	경산부(n=53)	t값	p값
	M ±S.D.	M ±S.D.		
1. 독신친구와의 관계 변화	1.89±1.05	1.83±0.93	0.33	0.74
2. 친척들과의 관계 변화	2.45±1.01	2.39±1.08	0.30	0.76
3. 기혼 친구와의 관계 변화	2.47±1.03	2.22±1.03	1.23	0.22
4. 친척이나 친구로 부터의 충고	2.81±1.00	2.56±0.99	1.24	0.21
5. 의료시설 이용문제(병원, 보건소 등)	3.22±1.01	3.32±0.89	-0.48	0.63
6. 지역사회 자원 이용가능성(아이 보모, 부모 교실 등)	2.54±1.07	2.62±1.14	-0.37	0.71
7. 고용이나 직장 문제	2.25±1.15	2.39±1.24	-0.61	0.54
8. 지역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교회, 부녀회 등)	2.18±1.23	2.01±1.11	0.72	0.47
계	2.48±0.76	2.42±0.65	0.42	0.67

<표 7>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 차이검증

(n=101)

특성	구분	실수	평균	t값	p값
정규적산전진찰	정규적	87	142.12	2.29*	0.02
	비정규적	14	134.64		

\*p < 0.05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8>.

산모들이 산전관리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은 곳은 책, 신문(59.4%)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친척, 친구, 이웃(35.7%)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었고, 친정어머니(17.8%), 시어머니(11.9%) 등의 순이었다. 의사(11.9%)와 간호사(3.0%)인 의료인에게서는 대상자들이 효율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못받고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정규적 산전진찰을 받는 대상자가 86.1%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료인에게서 효율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과는 산전 진찰시 임신부의 신체적인 안녕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대상자들의 요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변수자(1978)의 연구에서 병원에 입원한 산욕부가 산욕기 간호의 지식 및 정보를 의료전문인 보다 친정모 및 시부모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인데, 의료 전문인은 산후조리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제공되는 있는 비전문인에 의한 산후관리 지식과 전문적으로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산후관리에 대한 지식을 체계

적으로 통합하고, 이런 지식을 근거로 산욕부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하여 산후 합병증과 모아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분만 후의 산후조력자로는 친정어머니(56.4%)가 가장 많았고, 시어머니도 대상자의 26.7%에서 산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산관자가 없는 대상자도 5.0%나 있었다. 특별히 이런 대상자에게는 특히 산후 관리가 더 요구된다고 본다.

산모들이 임신, 분만, 신생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시 상담을 하는 창구는 의사가 53.5%였고, 기타(책 등)가 16.8%, 간호사 15.8%, 친정부모 15.8%, 친구나 이웃 13.9%, 시부모 8.9%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육적인 정보는 주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문제가 발생시 구체적인 의학적인 정보는 반수 이상에서 의사에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고려된다.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는 산전, 분만, 출산 직후 기간에 집중되지만 가족과 신생아의 욕구가 급증하는 산욕기 말에는 병원을 퇴원하여 가정에서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는 산욕부와 신생아에게 의료 전문인들이 도움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Gruis, 1977) 전문직 간호사는 교육, 상담, 그 외 정보 제공을 이용하여 산욕부 개개인을 사정하고 산욕부들의 요구와 그들이 실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입원기간인 분만 직후의 요구뿐만 아니라 모아가 가정에 돌아간 후 새로운 가족이 함께 지니게 될 산욕기 말의 요구까지를 전망함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산욕부의 간호요구를 조사하여 산욕기 산모의 간호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산욕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간호교육의 기초자료 및 간호중재의 합리적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표 8> 대상자의 지지자원 (n=101)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산전관리의 정보나 교육을 얻은 곳	친정어머니	18	17.8
	시어머니	12	11.9
	남편	2	2.0
	친척, 친구, 이웃	36	35.7
	의사	12	11.9
	간호사	3	3.0
	책, 신문	60	59.4
	방송매체	6	6.0
	기타	4	4.0
	산후조력자	친정어머니	57
시어머니		27	26.7
가정부		1	1.0
기타		11	10.9
없다		5	5.0
임신, 분만, 신생아에 대한 의문점 문의처	의사	54	53.5
	간호사	16	15.8
	친정부모	16	15.8
	시부모	9	8.9
	친구나 이웃 기타(책 등)	14 17	13.9 16.8

연구대상은 충북지역 2개의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분만 1주 이내의 산욕부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도구는 Bull(1979)의 MCQ(Maternal Concerns Questionnaire)를 산욕부의 간호요구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7년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frequency, t-test, ANOVA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욕부가 갖는 자신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평점 2.98이었고, 경산부에서는 평균평점 2.80으로 초산부의 간호요구가 경산부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갖는 간호요구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초산부 3.93, 경산부 3.75)이었다.

2) 산욕부가 갖는 아기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평점 3.64였고, 경산부에서는 평균평점 3.53으로 초산부의 간호요구가 경산부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아기에 대해 가장 많이 갖는 간호요구는 아이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초산부 3.91, 경산부 3.90)이었다.

3) 산욕부가 갖는 배우자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평점 3.33이었고, 경산부에서는 평균 평점 3.06으로 초산부의 간호요구가 경산부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1, p=0.03$ ). 항목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배우자에 대해 가장 많이 갖는 간호요구는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초산부 3.87, 경산부 3.77)이었다.

4) 산욕부가 갖는 가족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평점 2.65이었고, 경산부에서는 평균 평점 2.80으로 경산부의 간호요구가 초산부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가족에 대해 가장 많이 갖는 간호요구는 가족의 생활 방식의 변화(초산부 3.01, 경산부 2.93)이었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1.99, p=0.04$ ).

5) 산욕부가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초산부에서는 평균평점 2.48이었고, 경산부에서는 평균 평점 2.42로 초산부의 간호요구가 경산부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지역사회에 대해 가장 많이 갖는 간호요구는 의료시설 이용문제(초산부 2.48, 경산부 2.42)였다.

6)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정규적 산전진찰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9, p=0.02$ ).

산모간호의 초점은 분만으로 인해 야기된 신체 생리적 변화의 적응과정과 사회 심리적 적응에 기인된 요구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간호의 중재는 신체의 회복과 감염 및 이상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직접 간호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산모의 자가간호와 육아에 대한 교육과 지도, 산모와 아기, 가족과의 적응을 돕고, 사회 단체에 도움을 구하는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모 간호는 즉각적인 신체 간호와 일반적인 지도로 끝나기 때문에 퇴원 후 산모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성 있는 지속적인 산후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욕부 각 개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수혜자의 관점에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언

1) 병원에서의 산욕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병원에서는 산모의 즉각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산모의 요구는 산욕기간에 따라 변화되므로 즉각적인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를 연계성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2) 현대 병원의 산모 간호는 즉각적인 신체 요구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산욕부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제언한다.

3) 산모 교육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교육의 시기, 반복교육 및 산모의 준비성(rediness) 등이 제시되는데, 특히 준비성은 산모가 아기를 다루어 본 후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병원은 모아동실체제를 활성화하여 산후 산모가 신생아 직접 간호에 참여하게 하고, 퇴원후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즉각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4)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산욕기의 간호요구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변수자(1978), 산후관리에 대한 산욕부의 지식과 관습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7(2):74-88
- 유은광(1993),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 산후조리 의미의 분석, 간호학 탐구, 2(2): 37-65
- 유은광(1997), 여성의 건강상태와 산후조리 경험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 36(5): 74-90
- 이경혜(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67-79
- 이광옥(1992), 산욕부의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희, 박영숙(1998), 여성건강에 관한 간호연구 분석:1988-1997,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105-120
- 이자형(1996),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간호과학, 8(1):97-107
- 전영자(1997), 산욕기 초산모의 간호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1): 5-19
- 최의순(1977), 산후관리의 지식 및 실태조사, 중앙의학, 32(4):450-455
- 홍신영(1980), 질적간호와 수행방안, 대한간호, 19(5):7-14
- Bull, M.(1979), A study of the change in concerns of first time mothers after one week at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isconsin University
- Bull, M.(1981), Change in concerns of first time mothers after one week home, Journal of Obste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0:391-394
- Evans, C.J.(1991), Description of a home follow up program for childbearing families, Journal of Obste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0(2):113-118
- Geisler, J.(1989), The ability of structured and nonstructured follow-up telephone calls to elicit concerns of postpartum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ssouri University
- Graef, P., McGhee, K., Rozycki, J., Fescina-Jones, D., Clark, J.A., Thompson, J. & Brooton, D.(1988), Postpartum concerns of breastfeeding mothers, Journal of Nurse-Midwifery, 33(2):62-66
- Gruis, M.(1977), Beyond maternity: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12:180-189
- Hans, A.(1986), Postpartum assessment: The Psychological component, Journal of Obste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5:49-51
- Lemmer, C.M.(1987), Early discharge:Outcomes of primiparas and their infant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6:230-236
- Lipkin, G.B.(1978), Parent-Child nursing: Psychosocial aspects(11 ed), St. Louis: Mosby
- McCloskey, J.C. & Bulecheck, G.M.(1992),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Mosby Co.

- Mckenzie, C.A., Canaday, M.E., & Carroll, E.(1982), Comprehensive care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7:23-48
- Moss, J.(1981), Concerns of multiparas on the third postpartum da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0:421-424
- Moxon, B.E.(1989), A study of the intensity of concerns of postpartum mothers who live in the northwest perinatal region of Wisconsin prior to hospital dischar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isconsin University
- Muehl, P.A.(1983), A study of the intensity of concerns in the first time mothers at the end of the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Wisconsin University
- Norr, K., Nacion, K., & Abramson, R.(1989), Early discharge with home follow-up.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8:133-141
- Reeder, S.J., Martin, L.L. & Koniak-Griffin, D.(1997), *Maternity Nursing*(18th ed.). New York: Lippincott
- Rutledge, D.L. & Pridham, K.F.(1987), Postpartum mothers perception of competence for infant car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6:185-194
- Sumner, G., & Fritsch, J.(1977), Postnatal parental concerns: The first six weeks of lif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6(3):27-31
- Tribotti, S., Lyons, N., Blackburn, S., Stein, M. & Withers, J.(1988), Nursing diagnosis for the postpartum women.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7:410-416
- Wachs, T.D., & Gruen, G.(1982), *Early experience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Plenum Press.
- Youngkin, E.Q. & Davis, M.S.(1994), *Postpartum & Lactation, Women's health*. Appleton & Lange

= ABSTRACT=

##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of postpartum women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Myoung Hee Kim** (Dep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Seong Eun Lee** (Dept. of Nursing, Kyungpook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nursing needs of postpartum women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The goal of study was to obtain data needed to develop maternal education programs and to improve the nursing quality for postpartum women.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101 postpartum women who had delivery at 2 general hospitals in Chung-Buk,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29 to Nov. 28, 1997 by means of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the one which was consisted of revised Maternal Concerns Questionnaire(MCQ) developed by Bull(1979).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PC+ program by use of frequency, t-test and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concerns about 'self' was 2.98 for primipara and 2.80 for multipara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items of concerns 'for self', 'Being good mothers' was the highest (primipara 3.93, multipara 3.75).

2) The mean score of concerns about 'baby' was 3.64 for primipara and 3.53 for multipara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items of concerns 'for baby',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was the highest (primipara 3.91, multipara 3.90).

3) The mean score of concerns about 'husband' was 3.33 for primipara and 3.06 for multipara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2.11$ ,  $p=0.03$ ). Among the items of concerns 'for husband', 'Husband being a good father' was the highest (primipara 3.87, multipara 3.77).

4) The mean score of concerns about 'family' was 2.65 for primipara and 2.80 for multipara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items of concerns 'for family', 'Change in the family's lifestyle' was the highest(primipara 3.01, multipara 2.93,  $t=-1.99$ ,  $p=0.04$ ).

5) The mean score of concerns about 'community' was 2.48 for primipara and 2.42 for multipara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items of concerns 'for community', 'Getting to health care facilities' was the highest (primipara 2.48, multipara 2.42).

6) 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partum women's nursing needs an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regularly antenatal ca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2.29$ ,  $p=0.02$ ).

In conclusion, recognition of maternal concerns can be used by nurses to identify nursing diagnoses and to develop care plans that reflect the patient's priorities.